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4일

삼양식품(003230)

BUY | TP 1,800,000원 | CP 1,417,000원

농심(004370)

BUY | TP 540,000원 | CP 428,000원

KT&G(033780)

BUY | TP 220,000원 | CP 172,000원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09월 07일 | 산업분석_Update

음식료/담배

실적과 배당을 겸비한 육각형 업체로 투자 유효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카테고리인 '라면' 및 '빙과' 판단

8/14 자료('2Q26 실적 발표 시사점: 업종 지수 바닥 확인')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단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카테고리는 '라면' 및 '빙과' 업체이다. 삼양식품/농심/빙그레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라면'은 지역 다변화를 통한 해외 성과가 고무적이다. 불모지인 유럽(연간 인당 라면 소비량 4개 VS. 미국 15개 VS. 우리나라 75개)에서 2분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 2Q 삼양식품 유럽 매출은 1,100억원(YoY 125.9%, QoQ 22.6%), 농심은 430억원(YoY 368.6%, QoQ 15.8%)을 시현했다. 삼양식품은 내년 중국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Capa 여유 분을 유럽 및 미주에 할애할 계획이다. 농심도 수출 전용인 녹산 공장이 10월 말부터 시가동 되면서 유럽 향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ASP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양사 영업마진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빙과'는 롯데-빙그레(4월 해태 흡수합병)로 시장이 양분되면서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 양사가 합병 이후 내부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기 영업마진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빙그레는 1,400억원 내외 이익 시현이 가능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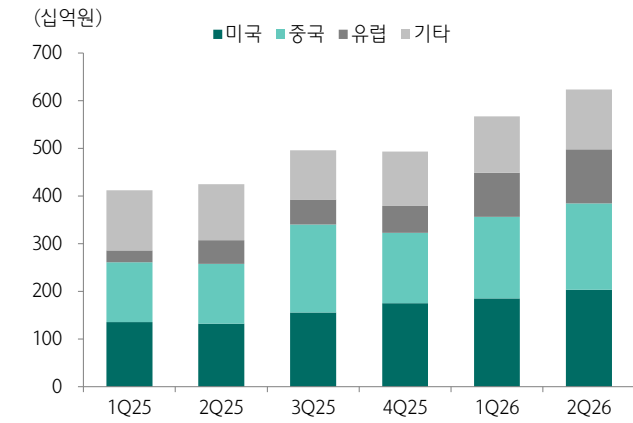
배당 확대에 적극적인 업체에 주목

연말 갈수록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가 하방 경직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선호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 주가의 시가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업체들 가운데, 배당 확대 의지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관심은 지속 높아질 것이다. 해당 업체는, KT&G(26F DPS 8,000원 가정시 4.7%)/ 빙그레(26F DPS 3,600원 가정시 4.0%)/ 현대그린푸드(26F DPS 710원 가정시 3.8%)로 판단된다. 사측이 배당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지는 않았으나 시가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업체는, 하이트진로(26F DPS 700원 가정시 4.5%)/ 대상(26F DPS 850원 가정시 4.4%)이다.

실적 및 배당 감안시, 삼양식품/농심/빙그레+ KT&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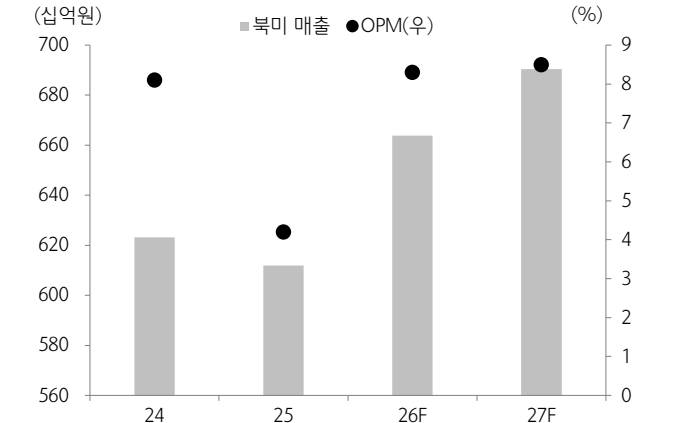
라면 업체의 실적 모멘텀은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다. 연말~내년 초 Capa 증설에 따른 매출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빙그레는 해태 빙과 사업 흡수 합병 이후 내부 비용 효율화 노력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측의 배당 확대 의지도 긍정적이다. KT&G는 연말 갈수록 자사주 매입/소각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4분기 발표(하나증권 추정)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공산이 커 보인다.

도표 1. 삼양식품: 유럽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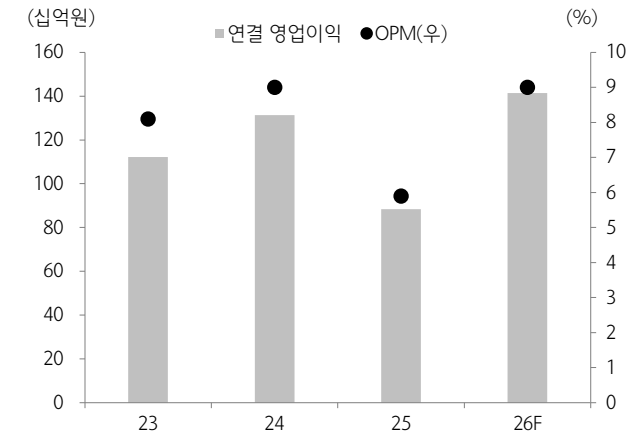
자료: 삼양식품, 하나증권

도표 2. 농심: 복미 법인 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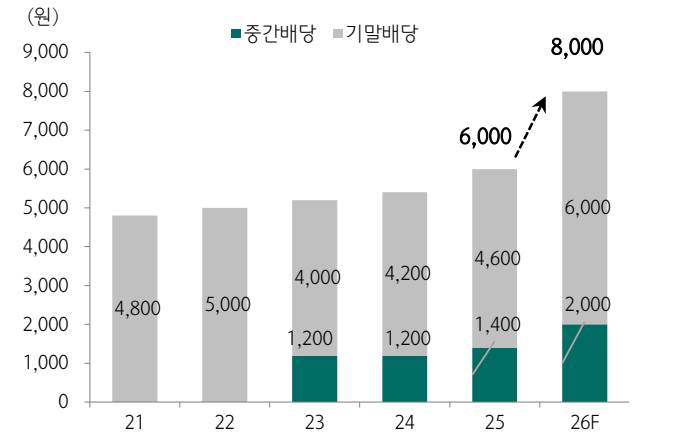
자료: 농심, 하나증권

도표 3. 빙그레: 올해 연결 손익 1,400억원 내외 예상



자료: 빙그레, 하나증권

도표 4. KT&G: 주당 배당금 추이



자료: KT&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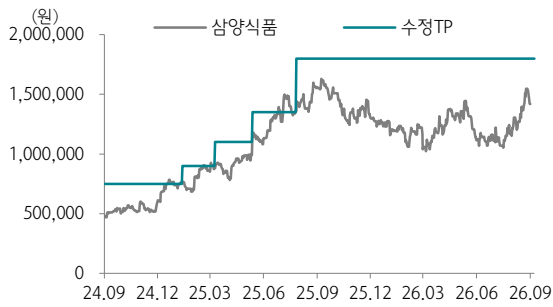
표 5. 주요 음식료/담배 업체 DPS 추정

회사명	종가 (원)	26F 시가배당수익률	25 DPS(원)	26F DPS(원)	25 배당성향	26F 배당성향
KT&G	172,000	4.7%	6,000	8,000	58%	55%
삼양식품	1,417,000	0.4%	4,800	6,200	9%	12%
오리온	126,300	3.2%	3,500	4,000	36%	33%
CJ제일제당	183,400	3.3%	6,000	6,000	-15%	31%
농심	430,000	1.4%	6,000	6,000	21%	18%
동원산업	38,100	3.1%	1,150	1,200	14%	14%
오리온홀딩스	25,550	5.1%	1,100	1,300	55%	51%
롯데월드푸드	145,500	2.3%	3,300	3,300	40%	28%
하이트진로	15,540	4.5%	700	700	116%	50%
롯데칠성	98,300	3.5%	3,400	3,400	67%	32%
빙그레	90,300	4.0%	3,300	3,600	53%	26%
대상	19,210	4.4%	850	850	-10%	29%
현대그린푸드	18,790	3.8%	676	710	25%	21%
풀무원	9,530	1.1%	102	102	21%	8%
CJ프레시웨이	23,700	2.1%	500	500	12%	12%

자료: 하나증권

투자조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과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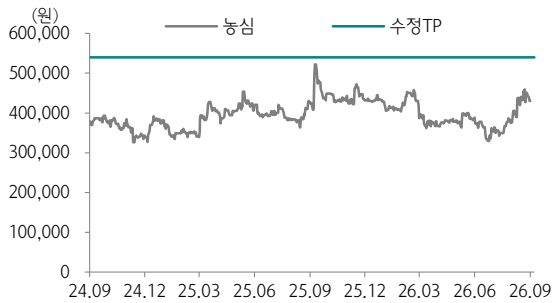
삼양식품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5.7.30	BUY	1,800,000		
25.5.16	BUY	1,350,000	-4.86%	10.96%
25.3.13	BUY	1,100,000	-17.15%	-9.18%
25.1.16	BUY	900,000	-8.72%	3.00%
24.7.22	BUY	750,000	-22.02%	4.40%

투자조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과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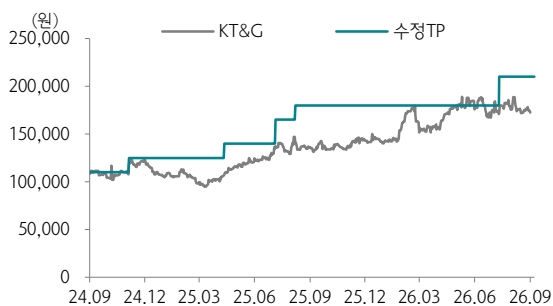
농심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3.10.10	BUY	540,000		

투자조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과리율

KT&G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15	BUY	210,000		
25.8.11	BUY	180,000	-13.97%	5.00%
25.7.9	BUY	165,000	-17.36%	-10.79%
25.4.15	BUY	140,000	-13.89%	-2.71%
24.11.8	BUY	125,000	-13.49%	-1.28%
24.4.9	BUY	110,000	-12.33%	6.27%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9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심은주)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심은주)는 2026년 9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조건 비율공시

- 투자조건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9%	1.81%	0.00%	100%

*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